

1811년 易地通信과 通信使

鄭章植*

目次

- 一. 서론
 - 二. 通信使 파견 연기
 - 1. 연기 요청
 - 2. 幕府의 속사정
 - 3. 易地通信 확정
 - 三. 易地通信
 - 1. 양국 講定과 使行 준비
 - 2. 對馬島의 인상
 - 3. 國書 傳命과 접대
 - 4. 문화 교류
 - 四. 결론
-

一. 서론

1786년(正祖10. 天明6)에 幕府의 10代 將軍 家治(1737-1786)가 病死하였다. 家治 將軍은 後嗣가 없었으므로, 1787년에 養子인 家齋(1773-1841)가 11代 將軍職을 襲職하였다. 將軍이 襲職하면 통신사를 파견하여 襲職을 축하하던 前例에 따라, 조선은 2~3년 내에 通信사를 파견하였으나, 이번에는 24년이나 지난 1811년(純祖11. 文化8) 2월에 通信사를 파견하였다. 그것도 將軍이 있는 江戶가 아니라 대마도에서 幕府 使節과 國書を 교환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異例의인 使行이었다. 이렇게 對馬島에 파견하는 使行에는 從事官도 없었고, 사행 인원도 대폭 줄였다. 이러한 通信사를 맞이하며, 막부는 上使에 小倉藩主를, 副使에 播州藩主를 임명하였고, 國書 傳命式은 對馬島主 私邸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이 파견하는 通信사는 일본의 首都를 來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通信사는 막부의 요청으로 대마도로 가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마지막 通信사가 되었다. 막부는 財政的인 이유를 들어, 500여 명에 가까운 使行員을 江戶까지 안내하고 접대하는 것이 번

* 청주대학교 일문과 교수, 일본학

잡하므로, 서로 간소하고 편리하게 하자며 대마도에서 통신사를 맞겠다고 것이었다. 당시 조선도 재정적으로 궁핍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前例를 중시하였으므로 江戶로 통신사를 파견하는 원칙을 처음부터 강조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조선은 막부와 대마도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마지막 통신사는 1811년 2월 12일 서울을 떠나, 3월 1일 東萊에 도착하여 준비를 갖추어, 閏3월 12일 發船하여 13일 대마도 佐須浦(佐須奈)에 도착하였다. 閏3월 29일에는 대마도 府中(嚴原)에 도착하여, 5월 22일 國書를 傳命하고, 7월 3일에 부산으로 돌아온 짧은 旅程이었다. 이 “易地通信”은 兩國 交隣의 상징이었던 통신사 파견과 접대가 형식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행의 모습을 正使의 軍官 柳相弼의『東槎錄』을 통하여 살펴보고, 당시의 易地通信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사신들은 일본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¹⁾

二. 通信使 파견 연기

1. 연기 요청

幕府의 10代 將軍 家治(1737-1786)가 病死한 것은 1786년(正祖10) 閏7월이었고, 조선은 倭館 訓導로부터 3개월 후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²⁾ 그리고 12월에 대마도는 差倭를 통하여 정식으로 조선에 訃音을 알려왔고, 또 6개월 후에는 11代 將軍 家齋(1773-1841)의 襲職을 알려왔으므로, 조선은 堂上譯官을 대마도에 파견하여 애도와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倭館으로부터 將軍의 訃音을 전해 듣고, 戶曹判書는 3년 내에 通信使 파견 요청이 있을 것이므로, 일본에 보낼 禮單人蔘 200근을 준비하도록 건의하였으니, 朝廷은 前例에 따라 통신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³⁾

그러나 3년이 지난 1788년(正祖12) 3월, 幕府도 前例에 따라 통신사 초빙을 대마도에 지시하였다가 5월에는 통신사 초빙 연기를 대마도에 명령하였다. 막부의 통신사 초빙 연기를 命받은 대마도는 1788년 10월 “通信使退定告知差倭”를 東萊로 보내어 “西京 京都에 불이 나서 재력이 다 없어졌고, 東武江戶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통신사행을 접대할 가망이 거의 없으므로 잠시 시기를 물려 정하여 점차 좋아지기를 기다려 달라고 하였

1) 『東槎錄』에서는 대마도로 가는 사행을 “易地信行”이라 하였고, 대마도에서 幕府 使節과 交隣하는 것을 “易地通信”이라 구별하였다. 막부 입장에서는 “易地聘禮”라고 할 수 있겠으나, 조선에서는 “易地通信”이 타당함으로 本稿도 “易地通信”으로 한다

2) 정조 실록 10년 10월 6일

3) 정조 실록 10년 10월 11일

다.”4) “通信使退定告知差倭” 일행은 倭館에서 통신사 초빙 연기 이유를 설명한 島主의 서계를 받아달라고 버티었으나, 조정은 규정 이외의 일이라고 差倭를 접대하지 않았다. 조선은 前例에 따라 통신사 파견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대마도가 갑자기 통신사 초빙 연기를 요청하였으니, 그 진의가 자못 의심스러웠다. 그러다가 이듬해 3월에야 正祖의 다음과 같은 지시로 島主의 서계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보통 약조를 어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통신사를 마땅히 보내야 하나, 그 일을 담당할 만큼 재력이 허락할 때에 한한다. 지금과 같이 물리기를 요청하면 우리의 교린 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사신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 또 원래 정했던 시일과 어긋난다고 해서 끝내 이를 거절하면 오랫동안 지체하는 폐단을 만든단 말인가. 특별히 허락하도록 하니 京接慰官을 보내어 접대하도록 하고, 또 그들이 요청한 통신사의 파견을 늦추는 일도 역시 그대로 시행토록 하라.

<『國譯 增正交隣志』 p.253 >

幕府의 命을 받아 통신사 파견 연기를 요청한 島主의 서계는, ‘本國의 사정이 아주 어렵다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이유 설명하였다.

本國은 요사이 흉년이 들어 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은 곤궁에 빠져 있습니다. 大君의 새로운 정치는 어질고, 관리들은 그것을 받들고 행하는바, 오직 백성을 구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 건데 현재는 은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 때에 귀국의 大使가 근엄히 오신다면 백성들은 황망히 동요될 것이고, 그 노고의 형상은 초목이 꺾이고 뽑히는 것 같습니다.

<「通信使初啓錄」己酉(1789) 3월 초7일. 奎章閣 圖書番號 15067.

孫承詒『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第5章. 交隣體制의 變質과 崩壞」再引用 >

여기에 대하여 조정은 통신사 파견 연기 期限을 막부에 물었으나, 막부는 더 이상 교섭을 진전시키지 않았다. 5)

위와 같이 통신사 파견 연기 요청은 막부가 일본 국내 사정을 이유로 먼저 提起한 것이었고, 조선은 이러한 막부의 진의를 의심하면서, 대마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연구자 중에는 “이러한 시간 장소, 규모의 변경은 주로 兩國의 국내 사정 때문이었다. 조선에서는 天災로 인하여 대규모 飢民이 발생하고, 또 양반계층의 당쟁 격화와 기강해이가 만성화되어, 조정이 필요한 물자공급이

4) 『國譯 增正交隣志』. p.253

5) “易地通信”에 대한 연구는 三宅英利『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第5章. 幕藩體制動搖期の通信使」, 孫承詒『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第5章. 交隣體制의 變質과 崩壞」를 참고

지체되기도 하였다”며, 易地通信을 兩國이 모두 필요하여 같이 준비한 것처럼 記述하였다. 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막부가 먼저 일본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요청하였고, 조선은 前例를 중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제의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6)

1607년부터 시작된 11번의 통신사 파견 시기를 결정하는 데도, 조선은 막부나 대마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난 1764년 통신사 파견 때도, 조선은 흉년과 전염병으로 禁酒令을 내려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려웠으나, 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交隣에서 前例와 禮를 중요한 德目으로 내세우던 조선이,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2. 幕府의 속사정

이렇게 幕府가 ‘凶年과 火災’를 이유로 통신사 파견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시 일본의 국내 사정은 통신사 초빙 경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이 악화되었을까? 우선 막부가 이유로 내 걸은 ‘凶年과 火災’는 분명히 심각한 정도이었다. 家齊 將軍 취임 전부터 ‘淺間山 噴火’(1783. 天明3)와 ‘天明의 大飢饉’으로 飢民들은 草根木皮는 물론이고 人肉까지 먹는 지경에 이르러 농민 봉기가 각처에서 일어났고, 대도시에서는 쌀값 폭등과 매점매석에 항의하는 폭동이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난국 타개를 위하여 家齊 將軍은 1787년(天明7)에 家治 將軍을 보좌하던 田沼意次(1719-88)를 파면하고, 새로운 老中에 松平定信을 등용하였다. 松平定信(1758-1829)은 8代 將軍 吉宗의 孫子로 혈기왕성한 30세에 막부의 중책을 맡아, 赤字에 허덕이던 막부 재정을 재건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1788년 京都의 大火災로 시가지의 4분의 3이 타버리고 二條城과 御所가 소실되었을 때, 松平定信은 직접 京都를 돌아보고 薩摩藩과 熊本藩에 京都 복구비로 20万兩을 4년에 걸쳐 上納하도록 命할 만큼 막부의 재정은 고갈되어 있었다. 松平定信은 이렇게 막부의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서민 생활에도 사치를 금하여 1786년(寬政元)에는 사치품 목록을 발표할 정도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였다.

이 때 대마도의 재정도 좋지 않았다. 대마도는 對朝鮮 외교를 중시하는 막부 정책을 이용하여, 1776년(正祖元年. 安永5)부터 매년 12,000兩씩 막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대마도는 對朝鮮 私貿易이 廢絶된 것은 아니었으나, 對朝鮮 私貿易이 廢絶되어 재정이 어렵다고 막부에 호소하여 지원을 받아내고 있었다. 대마도는 매년 12,000兩씩 막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參勤交代나 江戸藩邸 維持 및 對朝鮮 외교로 이보다 더 많은 경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7)

6) 仲尾 宏, 『朝鮮通信使』「通信使の終焉と征韓論の登場」, NHK人間講座(2001. 4月~5月期) p.141

7) 鄭成一 『朝鮮後期 對日貿易』 p.221-223

대마도의 對朝鮮 무역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와 부진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우선 대마도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銀과 銅의 산출량이 적어졌고, 주요 수입품이었던 人蔘도 산출량 부족으로 조선도 통신사 파견에 쓸 禮單蔘을 걱정할 정도이었다. 이렇게 人蔘 산출량이 부족하고 값이 騰貴함에 따라, 막부는 吉宗 將軍 때부터 人蔘 재배를 계획하여 1733년 이후부터 人蔘 輸入代替가 시작 되었으니, 18세기 후반부터 대마도 무역 수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⁸⁾ 이렇게 대마도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때, 대마도에서 통신사를 맞으면 막부의 지원은 물론이요, 대마도의 位相도 올라가고 지출도 적으니,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을 것은 분명하였으니, 대마도도 易地通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막부나 대마도가 밝히지 않은 다른 하나의 속사정은, 당시 일본 국내 사정이 통신사를 초빙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막부가 비싼 접대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諸藩에 부담시키며 통신사를 초빙한 것은, 막부의 威光을 諸藩에 과시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며, 조선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막부의 권위는 안정되었고, 중국, 조선과 대외관계도 안정되어 중국과 조선이 일본에 危害를 가할 우려는 없었으나, 北方 러시아의 남하와 서쪽에서 밀려오는 서양의 우세한 군사력을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海防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이 1787년부터 출판된 林子平의 『海國兵談』이었고, 이로 인하여 막부는 해안 방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조선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통신사의 江戶 往還은 보기 드문 이벤트였으나, 이렇게 성대한 이벤트를 지켜보는 지식인들의 속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다. 福岡藩의 貝原益軒(1630-1714)는 1682년(肅宗 8. 天和 2) 藍島에서 통신사를 만나 詩文唱和를 하며 조선에 관심을 보였으나, 그는 대중적인 地理書인 『扶桑記勝』에서 조선을 소개하며, “조선인은 劣等하고 神功皇后가 新羅를 정벌한 후 매년 朝貢을 바쳤다”고 기술하였다.⁹⁾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國學者 本居宣長(1730-1801)이 1778년에 완성한 『馭戎概言』은 書名이 말하듯이, “오랑캐(중국, 조선)를 神國 일본이 다스려야함을 강개(慷慨)하며 論한 言說”이라는 책이다.

당시 國學者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쇄국이라는 폐쇄적인 상황에서 釀成된 排外意識과, ‘記紀神話’로 왜곡된 朝鮮觀이 작용하여, 體制側(儒者)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표출되기도 하였으므로, 18세기 후반은 그러한 排外意識이 점차 증폭되어 가는 과정이었으므로, 통신사를 歡待하는 막부의 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었다.

통신사 초빙 외교에 대하여,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한 지식인은 新井白石(1657-1725)이었다. 新井白石은 1709년부터 1716년까지 幕政의 중직을 맡으며, 통신사 초빙 외교에 改變을 단행하여, 1711년 통신사 應接에서 조선과 심각한 대립을 보였다. 新井白石이 주

8) 위의 책 p.252-254

9) 拙稿 「近世日本の知識人に見る朝鮮認識の原點」, 日本學報 第22輯, 1989.5

장한 聘禮 改變의 기본 방침은, “和平. 簡素. 對等” 하게 통신사를 접대하자는 뜻으로, 통신사를 대마도에서 영접하고 格에 맞는 儀典을 주장하였지, 조선을 蔑視하거나 通信使를 ‘朝貢使’처럼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책략은 아니었다.

그런데 “新井白石의 見解 ‘朝鮮 蔑視觀’을 그대로 계승한 인물이 中井積善(竹山 1729-1804)이었고, 다시 中井積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당시의 老中 松平定信(1758-1829)이었다”고 하였다.¹⁰⁾ 앞에서 말하였듯이 新井白石의 見解가 “朝鮮 蔑視觀”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新井白石의 “朝鮮 蔑視觀”이 中井積善에 계승되었다가, 다시 松平定信에게 이어져 ‘易地聘禮’로 政策化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1788년 松平定信이 大坂을 둘러보러 왔을 때, 中井積善은 松平定信의 초대를 받아 時務를 論하였고, 그 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상세한 평론을 기술하여 『草茅危言』이라 이름 지어, 1789년(正祖13. 寬政 元) 겨울에 松平定信에게 奉모하였다. 이 『草茅危言』의 「朝鮮の事」에는, “조선은 본래 일본의 朝貢國이었으니, 통신사는 抗禮로 通交할 것이 아니라, 朝廷에 通貢해야 한다”며 통신사 접대 개혁과 대마도에서 접대를 提唱하였다. 中井積善은 분명히 “朝鮮 蔑視觀”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통신사 환대에 대한 反感과 古典이나 古代史에 바탕을 둔 왜곡된 朝鮮觀이었지, 新井白石의 사상을 계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¹¹⁾ 또 막부가 대마도에 통신사 초빙 연기 교섭을 명한 것은 1788년 5월이었고, 松平定信이 中井積善을 만난 것도 같은 해이었지만, 中井積善이 松平定信에게 『草茅危言』 10권을 奉모한 것은 1789년 겨울이었다. 즉, 松平定信의 통신사 초빙 연기 교섭 명령은 『草茅危言』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며, 『草茅危言』은 막부가 易地通信을 이행하는데 사상적 배경은 되었으나, 처음부터 직접적인 動機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易地通信 확정

조선이 통신사 파견 연기를 요청하는 差倭를 접대하고, 막부에 延期 기한을 물었을 때 아무런 答信이 없다가, 1791년(正祖15. 寬政3) 5월 老中 松平定信은 대마도 家老 平田에게, 통신사 빙례를 대마도에서 할 수 있도록 교섭하라고 지시하며, 書契案 등을 교부하였다. 대마도는 막부가 지시한 難題를 조선이 수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1791년 11월 “通信使議定差倭”를 보내어, 흥년으로 통신사 접대가 어렵지만 매양 연기하기도 어려우니, 대마도에서 빙례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通信使議定差倭”가 議定을 위한 差倭인지 알 수 없고, 조약에 없는 差倭라고 접대를 거절하다가,¹²⁾ 年末에는 倭館에 체류 중인 差倭가 빨리 돌아갈 것을 촉구

10) 孫承喆. 앞의 책. p.270

11)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下. p.318-319

하여 교섭에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老中 松平定信은 대마도 家老에게 대마도 병례 교섭이 빨리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마도 병례는 誠信의 뜻에서 나온 “兩國長久”를 위한 計策이라는 것을 조선에 이해시키라고 명령하였다.¹³⁾ 그러다가 1793년 7월 松平定信은 실각하였으나, ‘易地聘禮’가 막부와 대마도에 利得이었기 때문에 聘禮 교섭은 계속 추진되었다.

1796년 8월 家齊 將軍의世子가 죽고, 島主가 江戶에서 돌아와서, 朝廷이 堂上譯官 朴峻漢을 대마도에 파견하였을 때 朴俊漢은 任意로, 대마도가 易地通信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자신도 朝廷의 승낙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여, 이에 대한 ‘成功報酬’로 銅錢 2,000근을 약속 받았다.¹⁴⁾ 1797년 2월, 朝廷에서는 禮單人蔘 등의 감소로, 易地通信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朴峻漢은 講定譯官으로 倭館 館守와 通信使員의 감축, 禮單人蔘 감액, 병례 연기 등 易地通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1798년 12월에는 講定譯官 朴峻漢과 倭館 館守가 易地通信을 합의하고, 易地通信을 1807년까지 연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1805년 通信使行節目 講定 때 발각되어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였다.¹⁵⁾ 1805년 12월, 막부는 1809년 대마도에서 易地聘禮를 하자는 서계를 보내왔으나, 조선은 이전에 합의된 것은 “통역을 흉악하게 한 우리들의 일로써” 무효이니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하였다.¹⁶⁾

이렇게 사태가 어렵게 전개되자, 다급해진 倭館의 대마도인들이 無斷으로 문을 박차고 나와 사정을 호소하려는 집단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행동은 도리어 조정의 미움을 살뿐이었고, 조정은 이러한 집단행동을 “전적으로 고의적으로 트집을 잡아 恐動시키려는 계책”으로 판단하여,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¹⁷⁾ 그러면서 조선은 역관을 막부로 보내어, ‘易地聘禮’가 막부의 뜻인지 島主의 ‘情僞’인지를 탐지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며, 次第에 막부 執政과 島主가 있는 자리에서 倭館의 병폐를 호소하려고 하였다.¹⁸⁾

1808년 4월 대마도는 막부의 서계를 가지고 다시 易地聘禮를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우선 막부의 진의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직접 江戶에 譯官을 파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마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1809년 7월 대마도에서 막부 使者와 堂上譯官 玄義洵이 직접 만나 “通信使信行節目”을 講定하고, 막부의 의도가 접대에 폐단을 줄이는 것에 있음을 확인 하였다.¹⁹⁾ 이로써 조정은 易地通信을 승인하게 되었고, 우여곡절을 거쳐 易地通信은 성사되었다.²⁰⁾

12) 정조 실록 15년 11월 24일

13) 『對外關係使總合年表』, 1792.8.13. 吉川弘文館

14) 『對外關係使總合年表』, 1796.8.29. 吉川弘文館

15) 순조 실록 5년 8월 28일 9월 11일

16) 순조 실록 6년 5월 20일

17) 순조 실록 7년 7월 29일

18) 순조 실록 9년 5월 12일

19) 순조 실록 9년 8월 27일

1786년 11代 家齊 將軍의 襲職 이후 제기되었던 易地通信은 드디어 23년 만에 타결을 보았다. 조선도 통신사 파견에 드는 경비가 적지 않았으므로, 易地通信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으나, 막부의 직접 요청이 아니라는 名分論으로 지루하게 교섭을 끌어왔다. 조선은 우선 막부의 진의가 의심스러웠고, 또 대마도를 불신하였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조선의 인식 속에 각인된 대마도에 대한 '세습된 불신'은 이토록 오래도록 남아있었고, 반대로 대마도가 가지고 있던 '잠재적 武威의식'은 이때도 집단행동으로 나타났다.

조선이 무거운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 통신사를 江戸로 파견하는 이유는, 幕府 將軍과 國書を 교환하며 우호를 확인하고, 江戸를 오가며 일본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였고, 江戸에서 幕府 高官과 직접 만남으로써 중간에서 '狐假虎威'하는 대마도를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마도에서 易地通信을 한다면 재정 부담은 줄어дна, 우호나 정보 수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도리어 대마도의 위상만 높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三. 易地通信

1. 兩國 講定 과 使行 준비

대마도의 끈질긴 요청을 받아들여, 1809년 7월 堂上譯官 玄義洵은 대마도에서 막부가 보낸 使者(遠山景晋)와 만나, 易地通信은 막부가 통신사 접대에 폐단을 줄이자는 의도며, 앞으로 '永世不易'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드디어 "信使信行節目"을 講定하고 돌아왔다. 이 때 대마도에 갔던 譯官 玄義洵 등은, 대마도 백성의 생활, 島主에 관한 사항, 형벌, 풍속, 건축 등 9개항의 대마도 사정을 적어 조정에 보고 하였다.²⁰⁾ 이러한 관찰 보고를 근거로, 조정은 대마도 易地通信을 정식으로 결정하고, 10 월에야 講定한 내용에 따라 正使에 副提學 金履喬, 副使에 副司直 李勉求를 임명하였으니, 이것은 前行을 보낸 후 45년만이였다.²²⁾

1810년(純祖 10. 文化 7) 11월 11일, 禮曹는 대마도에서 講定된 節目 31개항을 보고하였는데, 31개항은 그간 11 번에 걸쳐 왕래한 통신 사행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쇠신하는 것이라, 그간 양국 교류에 무엇이 문제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31 개항을 크게 분류하면 대략 兵禮와 儀典 節次, 사행 준비와 예물에 관한 것임을 볼 때, 그간 양국의 갈등은 대개 儀禮的인 문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보면 모두 지엽적인 문제 같으나, 당시

20) 순조 실록 10년 1월 14일

21) 순조 실록 9년 12월 2일

22) 순조 실록 10년 10월 10일

儀禮는 국가 체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었다. 31개항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간 使行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총결산 해 볼 수 있다.²³⁾

1항은, “易地通信은 앞으로 約條를 정하여 ‘永世不易’한다” 하였다. 결국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易地通信을 결정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기에, 앞으로는 약조를 정하여 길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양측 실무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788년 막부의 의견 제시로 시작되어, 1809년 節目 講定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을 끌었으니, 막부나 대마도는 이번을 계기로 지루한 교섭이 다시는 없기를 바랐던 것이다.

3항은, 막부가 “將軍은 ‘大君’으로, 예조 서계에서 막부 使臣과 島主는 ‘貴大君’으로 써 달라는 것”이며, 25. 26항에 呼稱을 다시 明記한 것은, 호칭은 국가 체면에 관한 문제라서, 그간 호칭 문제로 갈등이 많았기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었다.

5항은, “양측은 上使와 副使만 差出”하여 경비를 절감하자는 것이다.

7항은, “조선 兩使는 忌日을 즉시 써서 보내고, 일본은 諱字를 알려 준다”는 것이다. 사신들은 사행 중에 개인적인 忌日을 이유로 儀禮 進行에 차질을 가져온 예가 많았으므로, 兩使의 忌日을 미리 알면 儀禮 준비에 지장이 없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원래 諱하는 글자가 없었으나, 조선이 諱字를 강조하였으므로 일본도 對等해야 한다며 1711년의 조선 國書에서 諱字를 문제 삼았다. 조선은 自國의 諱字만 강조하고 일본의 諱字에 무관심하였다가, 1711년에는 國書를 改書하여 대마도에서 교환하는 不祥事가 있었으므로, 사전에 그러한 외교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23항에 일본의 諱字 13字(康 忠 光 綱. 吉. 宣. 繼. 宗. 重. 治. 基. 育. 慶)를 넣었는데, 이 13자는 將軍의 이름이나 親族 이름에 많이 쓰이는 字였다.

9항의 “사행원은 350명을 초과하지 못 한다”와, 10항의 “騎船 2척과 卜船 2척이 渡海 한다”와, 11항의 “馬上才는 除滅한다”는 약조는 경비 절감이 목적이었다.

14항에,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 능한 사람을 데려 온다”는 약조는, 易地通信에서 경비 절감을 강조하였지만 문화교류는 계속 하겠다는 뜻이다. 中井積善이『草茅危言』에서 조선 文士들이 우쭐대는 꼴이 보기 싫다고 하였지만, 전통적으로 시행해 왔던 문화교류를 없앨 수는 없었다. 松平定信이 中井積善의『草茅危言』에 공감하여 易地通信을 시행하였다면, 中井積善이 그토록 비판한 문화교류를 왜 제외시키지 않았겠는가

16항에, “上通事와 譯員은 능숙한 사람을 差出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1764년 사행 때 趙曦이 지적한대로, 譯官들의 語學 수준이 낮다는 것을 대마도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양국의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었다.

17항에, “양측 國書와 서계 草本을 미리 보내고, 원본은 대마도에서 전달한다.”는 것은, 國書와 서계의 字句 修訂 문제로 사행이 지연되어, 접대 경비가 늘어났던 예가 여러 번 있었으므로, 그러한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사전 교섭으로 儀典 절차

23) 31개항을 편의상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다

에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경비도 절감하자는 것이다.

18항에, “水路와 陸路에 각별히 화재를 단속한다.”는 것은, 1748년에 화재로 禮單이 燒失되어 양측 모두가 어려움을 당한 예가 있었기에, 대마도가 특별히 요청한 사항일 것이다.

19항에, “일행을 각별히 단속하여 피차에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약조는, 1764년에 ‘崔天宗 被殺事件’으로 大坂에서 사행이 한 달여 지체되었고, 사건 해결을 둘러싸고 대마도가 많이 시달렸으므로, 이것을 특히 강조하였을 것이다.

20항과 21항에, “사신의 私禮를 減한다”는 약조도, 사신이 사사로이 예물을 주면, 받는 쪽도 答禮를 해야 하므로, 결국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22항에, “조선의 公私禮單은 목록대로 시행한다”는 약조도, 결국 경비 절감에 귀결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렇게 예물에 대하여 약조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예물을 보내야 할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29항에서는 “예물을 여유 있게 준비하자”는 단서도 달았다.

30항에, “禁酒 與否를 통지한다.”는 약조도, 조선의 禁酒令으로 1764년 사신이 國書傳命式에서 빈 술병과 빈 잔으로 儀禮를 치른 적이 있었으니, 禁酒令을 미리 알려주면 준비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²⁴⁾

31항에, “빠진 사항은 追後에 講定한다”고 다시 문제점을 보충하기로 약조하였다.

이렇게 세심한 31항의 節目은 그간 발생하였던 많은 문제와 施行錯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예방조치이었는데, 가장 많은 항목이 경비 절감에 관한 것이었고, 다음이 국가 체면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이것을 보면, 易地通信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으며, 그간 통신사 외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대마도의 “通信裁判差倭”가 1810년 9월 5일에 올린 講定 節目 다음에는, 조정에서 大君, ‘儲君’, 일본 兩使臣, 島主에게 주는 公禮單 物目과, 사신이 大君, ‘儲君’, 일본 兩使臣, 江戸의 접대관 6명, 島主에게 주는 私禮單 物目を 열거하였다.²⁵⁾

이번에 公禮單으로 將軍(大君)에게 주는 수량을 이전의 수량()안의 숫자와 몇 가지만 비교해 보면, 人蔘 33斤(50), 大襦子 5疋(10), 大緞子 5필(10), 白苧布 15필(30), 生苧布 15필(30), 白綿紬 25필(50), 黑麻布 15필(30), 虎皮 7張(15), 豹皮 10張(20) 등으로, 대략 반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사신이 島主에게 주는 私禮單은, 人蔘 2근(3), 虎皮 1장(1), 油菴 3장(3), 花席 5장(5), 色紙 3束(3), 淸心元 10丸(10) 등으로 이전과 차이가 없으나, 이번은 ‘御三家와 ‘老中’ 등의 幕府 要人과 以酌庵 長老를 비롯하여 使行에 참가한 대마도 사람들에게 예단 贈給을 모두 폐지하기로 講定하였기 때문에, 양측 모두 부담이 훨씬 줄었다.²⁷⁾

24) 순조 실록 9년 8월 1일에도 禁酒令을 내릴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다.

25) 순조 실록 10년 11월 11일

26) 『國譯 增正交隣志』 p.193

27) 『國譯 增正交隣志』 <三使臣 使禮單> p.194-199

交隣外交에서 禮單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고, 贈給하는 物目과 수량은 국가 체면에 관계 되었기에, 節目 講定에서 중요한 사항이었다. 조선은 늘 통신사 파견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나, 막부가 제기한 易地通信을 받아들임으로써, 역설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이번에도 300명이 넘는 인원이 사행을 나감으로, 규율을 위하여 禁斷節目도 정하였는데, 潛商을 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한 자는 首譯이나 軍官 이하는 바로 효시토록 하였고, 員役 이하에 만일 “倭女”와 밀통하는 자가 있으면 極律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節目講定이나 禁斷節目에 예의범절에 관한 규정으로는, 節目講定 19항에 “일행의 사람들을 각 별히 단속하여 피차에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외에 예의범절에 대한 규율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지난 1764년에 趙曦은 사행록을 詳考하여 사행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員役에게 曉諭한 글”과 “禁制條”. “約束條”를 布告하며, “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웃지 말고, 無禮하고 恭敬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趙曦이 사행원의 ‘體貌’를 각별히 당부했어도, 대마도 사람들을 업신여기다가 ‘崔天宗 被殺事件’이 발생하였는데 그간 50여 년이 지났다고 사행원의 ‘매녀’가 좋아졌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講定 節目” 밑에 “通信使의 應行 事件”에는 使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渡海 날짜와 준비 사항 등을 열거하며, 癸未年(1763) 예에 의해 差備하여 마련하였으나, ‘매녀’에 대해서는 癸未年 기록을 읽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前行 때와 달리 ‘매녀’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았던 것은, 오랜만의 사행이라 典範을 詳考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 對馬島의 印象

1811년(純祖 11. 文化 8) 2월 12일 사신은 서울을 떠났다. 사신을 보내며 純祖는, “비록 멀지 않은 지역이고, 또한 江戶에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객지에 가는 것이니, 彼人들의 접대하는 제반 절차를 유념해서 檢察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下敎하며, 아울러 사고가 없도록 일행을 점검하고 단속하라고 당부하였다. 純祖의 관심은 이제 敵情 探索이나 交隣보다도, 대마도가 어떻게 사신을 접대하는가를 살피는데 있었다. 조선이 생각할 때는, 江戶로 가야 할 사행이 대마도로 가니, 대마도의 位相이 좀 높아졌다고 그들의 콧대가 높아져서, 혹시나 조선을 깔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사신은 “彼人들의 접대하는 제반 절차”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3월 8일에 釜山客舍에서 賜宴이 있었다. 賜宴은 左水使가 준비하여 下輩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餞別宴이었다. 대마도와 節目을 講定할 때는 “사신은 선달에 東萊로 가서 정월에 바다를 건넌다.”하였지만 그것은 조선이 사행 출발을 지연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대마도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조선은 급할 것이 없었으므로 정월이 지나서야 출발하게 되었다.

3월 1일 東萊에 도착하여 출발 준비에 들어가, 9일부터 12일 海神祭를 올릴 때까지 모두 술과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않고, 風樂 問喪 問病 刑殺 등의 不淨한 것을 멀리 하며 조용히 致齋하였다. 부산에서 50여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대마도를 향해하는데 이렇게 致齋하며 걱정하는 것은, 海峽 중간에 파도가 험한 難所가 있어서 海難事故가 걱정이었고, 또 많은 사람이 이동하였으므로 火災나 안전사고가 많았기에 사신은 海神의 위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사행은 3월 16일을 출발일로 觀象監이 擇日하였으나, 마침 썰물을 만나 運船이 여의치 않아 출발을 포기하고, 日官이 당초에 거론한 22일로 다시 擇日하였다.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에, 대마도 사람이 관례에 따라 술과 안주를 올리는 單子에 延賓使라는 ‘使자를 잘못 썼다고 받지 않으며, 禮에 대하여 엄격한 자세를 보였다.

日官이 擇日한 22일도 風勢가 불순하여 20여 일 바람을 기다리다가, 윤3월 12일 아침에 발선한 17척의 船團은 험한 뱃길을 무사히 향해하여, 13일 아침에 佐須浦에 도착하여 狀啓를 올렸다.²⁸⁾

이번 사행록의 筆者 柳相弼은 正使 金履喬가 帶同한 軍官 5명 중에 하나로, 前에 郡守를 지냈으며 이번에 軍官으로 日供을 맡았으나, 사행록 기록을 위하여 先行 사행록을 보았다고 언급하였다.²⁹⁾ 그래서 柳相弼은 先行이 언급한 것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듯 하다. 柳相弼이 본 대마도의 첫인상은 우선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모든 사신들이 말하였듯이, 器物의 제도는 精巧하였고 山勢는 秀麗하였다. 대마도는 山勢가 험하고 “松竹이 많아서” 別天地 같은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다. 柳相弼은 佐須浦에 머무는 동안에 경치를 둘러보고, “上下의 山色이 아름답고 湖光이 맑으니, 참으로 섬 속의 名勝”이라고 찬양하였고, 正使는 사행을 위하여 詩會를 열기도 하였다.

다만 다른 것은 그들의 복장이나 모습이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보일뿐이었다. “자식을 안고 젖을 먹이는 여자는 그 乳房을 내놓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다”(윤3월 14일)며, 이러한 모습에 낯 설은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당시 조선의 庶民들이 사는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柳相弼은 軍官이었지만 士大夫 신분이었으므로, 대마도를 보고 느끼는 것은 先行 사행록 필자들과 비슷하였을 것이나, 대마도를 “오랑캐”라는 先入見으로 보지 않고, 견문한 것을 차분히 기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사행은 13일 佐須浦에 도착하였으나, 악포(鰐浦)를 지나는 뱃길이 너무 험하여, 물결이 평온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柳相弼은, 악포에는 “지나간 癸未年 信行 때 우리나라 使船 1척이 침몰하여, 그 때에 익사한 180인을 제사 드리는 祠堂을 갯가에 세웠는데, 지나는 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낸다.” 하였다. 그러면서 “癸未年의 日記를 살펴보니, 어느 해인지 알 수 없으나, 使船이 악포를 지날 때, 大通倭와 역관이 짐을 수검하는 문제로 다

28) 윤3월 13일 佐須浦에서 飛船便에 보낸 狀啓는, 東萊를 거쳐 1주일만인 윤3월 20일 조정에 보고 되었다

29) 윤3월 21일에 “癸未年(1763)의 日記(趙曦의 『海槎日記』)를 살펴보니”라고 하였다.

투다가, 韓天錫이 크게 노하여 발을 들어서 찼다. 왜인은 본래 포악하므로 곧 칼을 뽑아 공격을 하니 배 가운데가 크게 요란하였다. 서로 싸우다가 우리나라 사람 100여 인이 익사하였는데 왜인 익사자는 7인뿐이었다. 그 후 왜선이 여기를 지나면 반드시 침몰하게 되므로, 사당을 세워 제사를 올리니 사고가 없었다” 하였다(癸未 11월 21일 柳相弼이 참고 하였다는 “癸未年의 日記”는 前行인 1763년(癸未, 英祖 39, 寶曆 13) 趙曦의 『海槎日記』를 말하는데, 『海槎日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지난 癸未年, 바다를 건널 때에 譯官 韓天錫 일행이 여기서 빠져 죽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구당(瞿塘)의 험악함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마는, 아마 여기보다 더하지는 않으리라.

<趙曦『海槎日記』10월 19일>

여기에서, “癸未年의 日記를 살펴보니, 어느 해인지 알 수 없으나”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지난 癸未年”이란 60년 전인 1703년(癸未年, 숙종 29, 元祿 16)으로 譯官 韓天錫과 朴世亮 일행이 問慰譯官으로 파견되었다가 조난당했던 때다. 1763년 使行의 正使 趙曦은 『海槎日記』에서, 譯官과 差倭가 서로 싸우다가 파선하였다고 하지는 않았다. 『增正交隣志』도 파선 원인이 싸움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파선된 곳이 험한 바다를 지난 곳이고 差倭도 무사히 들어간 것 또한 그 단서를 밝히지 못하니 지금까지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여운을 남겼으므로, 이러한 표현이 후에 많은 의혹을 남길 수 있었고, 다른 소문으로 부풀어질 수 있었으므로, 악포 해난사고를 화제로 柳相弼이 부정확한 이야기를 쓸 수도 있었겠다.³⁰⁾

西泊浦에 들어가니,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는데 “여인들은 乘船에 익숙하여 노를 저으며 우리 樓船을 둘러싸고 혹은 손을 흔들어 우리들을 부르기도 하고, 혹은 옷깃을 헤치고 그 유방을 내어 보이기도 하니, 그 풍속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이와 같았다”며, 남자가 내외하는 것이 당연하였던 사대부의 눈으로 볼 때 그곳의 풍속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도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庶民이 가슴을 노출하는 것은 그리 禁忌視 하지 않았다.³¹⁾ 특히 대마도에는 海女가 물질하는 전통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昭和 中期까지도 대마도 해녀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작업하는 사진이 관광 팸플릿에 실려 있었으니, 19세기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상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본 柳相弼은, 그것을 ‘蠻俗’이니 ‘오랑캐’니 하며 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냉정함을 보였다.

30) 『國譯 增正交隣志』 p.274-275
31) 鄭誠熙(2001) 『朝鮮의 性風俗』伽藍企劃 p.242

3. 國書 傳命과 接待

대마도로 간 使臣은 부산이 가까워 여러 가지 地理的 利點이 있었다. 우선 문제가 생기면 ‘飛船便’에 狀啓를 보내어 朝廷의 訓諭를 빨리 받아볼 수 있었고, 江戶까지 가야 한다는 長途의 부담도 없었으니 몸과 마음이 편하였다. 윤3월 13일 渡海狀啓를 가지고 갔던 ‘飛船’이 24일 돌아오는 편에 여러 사행원의 家書를 가지고 왔으니 문서 연락은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윤3월 29일에 대마도 府中에 도착하였다는 狀啓는 4월 14일 朝廷에 보고 되었는데, 佐須浦에서 띄운 渡海狀啓보다 風便으로 1주일 정도 느렸지만, 당시로서는 빠르고 편리한 通信 體制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江戶와 大坂間을 ‘飛脚’이라는 專門 人夫가 6일 만에 走破하였고, 1719년의 『海游錄』에는 서울에서 보낸 편지가 28일 만에 江戶에 도달하였다고, 서로 편리한 통신 체제로 연결되어 있었다.³²⁾ 물론 이러한 통신 체제는 조선의 驛馬와 대마도의 ‘飛船’과 幕府의 ‘飛脚’이 잘 연계 되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통신 체제가 도리어 使臣의 意思 결정에 自主性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711년 사행 때 사신은 國書 改書 문제로 논쟁하다가, 결국 年末에 朝廷으로 急報를 보내, 國書를 다시 고쳐서 대마도에서 교환한 예가 있었듯이 이번에도 지리적인 利點이 도리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4월 9일 江戶 接待官은, “(使臣의 印信을 두는) 印床을 賓主가 서로 만나보는 자리에 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인 듯하고, 癸未年(1763)의 例에 의거하여도 또한 印床이 없었으니, 지금도 마땅히 前日의 講定한 데 의하여 각각 敬禮를 다하여야 합니다.”하며, 儀禮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사신의 印信은 임금의 名을 받은 使臣의 權威를 상징하는 것이니, 印信은 별도로 말에 싣고 갈 만큼 중요하였다. 江戶 接待官이 印床을 치워달라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三堂譯官은 “印床이 癸未年에는 없었지만, 사신의 信物이니 치울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島主(30代 宗義功)도 譯官의 말에 同調하여, “江戶 接待官은 食事 담당이며, 印床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으니 상관 말라” 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논란이 없었다.

그러다가 5월 9일 島主와 譯官이 막부 사신 접견을 상의하는 자리에서, 島主는 “江戶 使臣을 접견할 때에는 舊例에 의하여 印床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였다. 그러나 前行 기록에는 印床을 설치한 前例가 없었으므로, 무엇을 典範으로 삼을까 사신들의 의견은 분분하였다. 正使의 壯士軍官 文永哲은 평안도 사람의 직선적인 기질로 “저들의 禮를 따르게 한다면, 國書를 받들고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兩國 사정에 밝은 首譯 玄義洵은 “正使가 幕府 ‘執政’을 보려면 內間에서 外間으로 나오는 것인데,

32) 1719년 『海游錄』10월 7일

印信을 꼭 옮겨야 할 필요도 없으며, 印信의 유무는 본래 대단한 관계도 아닌데 이를 만약 끝까지 고집한다면 13일에 예정된 兩國 사신의 相接禮도 못하게 되고, 國書 傳命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幕府 사신은 江戸의 裁決을 다시 받아야 하고, 그러자면 한 달이 넘을 것이며, 正使도 啓聞을 올려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다가 해를 넘기게 된다. 그러면 正使는 비록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결국 막중한 國書を 傳命하는데 고집을 부리다가 島中에 체류하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舊例를 허락하여 피차 원만하게 처리한다면, 우리의 體貌와 예의도 손상되지 않고, 저들과 和氣도 잃지 않을 것이다”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柳相弼은 “行期の 遲速을 이 의논에 결부시키지 말자”며 강경론을 주장하였고, 副使의 軍官(許乘)은 “이번 信行이 이미 舊例가 아닌데, 어찌 舊例를 고집하는가?”고 온건론이었다.

副使도 “강경하게 대응하면 저들도 강경하게 나올 터이니, 서로 고집만 한다면 뒷수습을 어떻게 하며,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변칙도 있다. 그러니 首譯의 말을 따라, 그들을 겨룰 것도 못되는 처지에 두면 우리의 체면도 크게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강경하게 대응하면 결국 저들도 강경하게 고집할 것이니, 正使가 막부 使者와 절충하다가 그래도 저들이 끝까지 고집하면, 조정에 알리고 배를 돌려도 조정에서 할 말이 있을 것이고, 島中에 위엄도 떨치게 될 것이다”고 건의하였다. 결국 幕府와 대마도 사정에 밝은 首譯의 의견과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副使의 온건론으로 기울어졌다.

그 후 正使가 幕府 ‘使者’와 印床를 놓는 문제에 대하여 교섭하였다는 이야기는 없으나, 5월 13일 兩國 사신의 相接禮가 무사히 끝난 것을 보면, 副使와 首譯의 온건론에 따라 조선의 體貌와 예의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절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相接禮는 島主 私邸에서 있었으나, 島主는 身病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島主의 아들 “巖千”(岩千代, 12歲)이 島主 役割을 맡았다.³³⁾

막부 사신은 島主 아들을 통하여 “關白”의 말로 임금(純祖)의 안부를 묻고, 반대로 사신도 首譯을 통하여 “關白”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儀禮를 끝내고, 서로 茶와 人蔘茶를 대접하며 지극히 간소하게 마쳤다. 이날 相接禮나 막부 사신에 대한 평가는 없었으나, 지난 4월 15일 막부 사신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온 軍官과 首譯의 막부 사신에 대한 인물평은 좋아서, “인물이 모두 지극히 俊秀하고 질서도 지극히 정돈되어 엄숙하지만 하고 떠들썩함이 없었다.”고 하였다. 지난 1810년 12월에, 만약 島主가 身病으로 1811년의 聘禮를 主管하지 못하면, 아들(巖千)이 빙례를 대행할 수 있도록 “公命帖”에 錄示해 두었다.³⁴⁾ 그래서 이번 相接禮는 島主 아들이 빙례를 대행할 수 있었으나, 또 島主가 身病을 이유로 國書傳命式 禮事도 아들이 대행하겠다는 제의에 兩使가 반대하여, 5월 18일로

33) 1812년 島主(義功)가 물러나자 아들 巖千(岩千代)이 島主職을 世襲하여 ‘義實’이 되었고 ‘易地聘禮’ 성공으로 1817년에는 막부로부터 加封 2万石을 받았다.

34) 『國譯 海行摠載』X 『東槎錄』 p.330

예정되었던 國書傳命式은 22일로 연기되었다. 兩使는 島主에게 “別書契”를 보내어, 아무리 島主가 병석에 누웠더라도 “禮貌를 존중하고 事體를 신중히 하는 도리가 아니다”며 아들의 禮事 대행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5월 22일 島主는 자기 집에서 國書傳命式 禮事를 주관하였고, 式典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兩國 사신은 서로 읍하여 안부를 묻고는 茶를 마시고, 다시 서로 읍하고 헤어지는 간단한 절차로 끝마쳤다. 그러나 5월 26일 島主 집의 饗宴은 다음과 같이 성대하였다.

“먼저 七五三味床을 올리고, 3차 進飯하고 3차 요반(澆飯)을 마치고, 술상을 올리고, 또 酒樽을 올리니 다같이 조금 먹고 마신 뒤에 床을 내고는 또 과일과 차를 올리며 이를 마치고 서로 두 번 읍을 하였다. 따라서 들어간 여러 관원은 바깥 廣間에 앉아서 모두 상을 받았는데, 軍官과 上上官에도 또한 七五三味床을 차렸다. 두 사신은 首譯으로 하여금 江戶의 두 사신에게 致謝하게 한 뒤에, 두 번 읍하고 나와서 使館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七五三味床”은 최근 히로시마의 시모카마카리(下蒲刈町) ‘朝鮮通信使資料館’에 전시된 ‘七五三膳’을 말하며, ‘本膳. 二膳. 三膳. 四つ目. 五つ目’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요리에, 다시 ‘吸物. 折. 押. 二つ星之物. 三つ星の物. 菓子. 茶’가 나오는 진수성찬이었다.³⁵⁾ 당시 將軍의 ‘儀禮膳’은 ‘五五三膳’에 ‘二汁七菜’가 나왔는데 通信使의 軍官이나 上上官까지 “七五三味床”(“七五三膳”)을 받았다는 것은 막부가 경비 절감에 노력하면서도 통신사 접대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겠다.

통신사에 대한 성대한 접대는 5월 26일만이 아니었다. 윤3월 29일 使行이 對馬島 府中에 도착하자, 접대로 兩使와 上上官에게는 ‘三汁九菜’를, 上官과 次官에게는 ‘二汁七菜’를, 中官과 下官에게는 ‘一汁五菜’를 대접하였다.³⁶⁾ 통신사 도착을 축하하는 향응은 4월 9일에 열렸고, 兩使와 上上官을 위하여 “江戶 接待官이 올린 熟供”은, 兩使와 上上官에게 ‘七五三引替なし’이었고, 4월 11일 島主가 上官과 次官에게 베푼 熟供도 사신에게 드리는 熟供보다 덜하지 않은 ‘七五三膳’이었고, 4월 13일 小童과 中官에게는 ‘五五三膳’을 下官에게는 ‘二汁七菜’를 대접하였다.

당시 饗宴 요리에 海産物이 많았고 또 여름철이었으니, 여기에 든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준비한 사람들의 노고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신사에 대한 화려한 접대는 1711년 사행까지 ‘七五三引替膳’이었으나, 막부의 재정 악화와 대마도의 貿易 쇠퇴로 1719년 使行부터 생략된 ‘七五三引替なし’로 바뀌었지만, 이번의 접대 경비 총액은 약 38

35) 廣島縣安芸郡下蒲刈町 『安芸蒲刈御馳走一番』, 1989

36) 袱紗料理(ふくさりょうり)는 ‘本膳料理’를 줄인 것으로, 儀式的인 ‘本膳’과 略式인 ‘懷石’의 중간 정도이다.

万兩이었다. 37) 그런데 대마도가 1807년에 幕府로부터 受領한 ‘通信使入料 五万兩과 ‘別段 三万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었다.38)

지난 1810년 節目 講定 때 “조선 國書 및 일본 兩使의 書契 草本은 기일 전에 贈書 해 보내고, 일본의 答書 또한 베껴서 보내, 피차 서로 對馬州에 닿게 하되, 滯留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고 미리 定하였으므로, 國書도 문제 될 것이 없었다. 國書는 “사신을 보내는 禮가 4紀(48년)를 넘었으나 慣例에 따라 兩國 修好를 두텁게 하는 뜻으로 曩職 賀禮를 올리며, 토산물로 정성을 부친다.”는 의례적인 내용이었고, 年號는 淸의 “嘉慶 16年”으로 썼다.

이에 막부 答書는 “承統을 축하하는 循聘 의식과 예물을 감사하며, 津島(對馬島) 成禮는 새 것을 좇았으나 뜻은 옛 것을 따른 것으로, 時宜를 맞추어서 양국 호의를 돈독하기 위함”이라고 답하며, 年號는 “文化 8年 辛未”로 썼다.39)

4. 文化 交流

이번 사행은 경비절감을 위하여 겨우 馬上才를 除滅하였으나, 아무리 경비절감이라 하여도 前例로 이어져온 兩國의 문화교류를 없앨 수는 없었다. “글에 능하고 書畫에 능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講定한 것은 문화교류도 사행 목적에 넣으려는 조선의 의도가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신은 역시 文筆에 能한 인물을 선발하였고, 또 製述官, 寫字官, 畫員, 良醫 등도 同行하였고, 使行의 偉容을 위하여 樂工, 旗手, 吹手 등도 除滅하지 않았다. 대마도의 요청으로 從事官을 없앴지만, 다른 구성원은 前과 같이 同行하였으니, 모든 구색은 갖추어졌다.

使行은 기항지인 西泊浦부터 風樂과 춤으로 그들을 慰問하였고, 대마도 府中에 들어갈 때는 正服을 갖추고 吹打를 연주하여 偉容을 과시하였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抑佛崇儒를 志向하였으나, 대마도에서 맞는 4월 초과일을 그들과 함께 즐기려고, 正使는 黃蜜 10근을 주며 모든 使行員이 燈을 하나씩 만들어 正廳 앞에 달도록 하고, 풍악을 베풀고 술도 주었다. 6월 19일에는 島主가 베푼 下船宴에서 일본의 風樂과 遊戲가 있었고, 여기에 답하여 사신도 “춤을 잘 추는 小童으로 하여금 戰笠을 쓰고 快子를 입고 춤을 추게 하니, 江戶의 使者와 島人들로서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國書를 傳命한 후 막부의 答書를 기다리는 동안, 여흥으로 壯士가 바둑알을 손에 쥐고 부수는 힘자랑을 보여주며 대마도

37) 高正晴子 『朝鮮通信使の響應』 明石書店 p.185-208

38) 『對外關係使總合年表』 1807.3.1 吉川弘文館

39) 조선은 1607년 通交가再開될 때도 막부 答書에 일본 年號를 인정하지 않았고, 막부는 통신사 초빙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조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龍集”(1607년 1617년 “歲次”(1624년)로 썼었다. 1636년에는 상호평등 원칙을 주장하는 막부 의견에 밀려, ‘寬永 年號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 때부터 일본 年號로 쓰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은근히 조선의武威를 과시하였다.(6월 8일) 사행 때마다 이렇게 조선의武威를 과시하는 것은, 대마도 사람들이 일본의武威를 ‘狐假虎威’하며 조선을 깔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있었다.

文化交流는 自國의 長技를 자랑하는 것이라, 島主는 일본의 技術 水準을 보여주는 “戲具”를 보내왔다. “戲具”라는 장난감은 ‘絡繰人形(からくりになぎょう)’로, “내부에 機輪을 장치하여 美人이 거문고를 타는 형태를 만들어서, 運轉에 따라 소리가 나니 冷冷하게 들을 만하였으나”, 사신은 그 기술을 감탄하기보다 “戲子具는 淫巧에 가까우므로 돌려보내라”하였다.(4월 22일) 당시 일본의 기술을 士大夫가 보기에는 아이들 장난 같은 “淫巧”이었지만, ‘絡繰人形’은 서양 기술과 맞먹을 정도로 정교하여 지금도 놀랄만한 수준이었지만, 단지 아이들 장난 같은 “戲具”로 보였기에 사신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불을 끄는 水車는 공중으로 물을 수십 길 뿜어내어 사신들을 놀라게 하였으나, 그런 기술도 아이들 장난 같이 보였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지 않았다.(4월 17일) 幕府 사신도 문화교류를 위하여 大坂의 演藝人(“大坂城傀儡”)을 데려와 유희를 보였는데, 그들의 장구. 거문고 피리 소리가 귀에 익지 않아 괴이하게 들렸으나, 江戸 연예인은 기술이 좋다고 사신은 각종 物品을 償으로 주었다.(6월 2일)

사신이 생각하는 문화교류는 서로의 長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신의 特技라 할 수 있는 詩文을 일본 文士와 唱和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사신은 佐須浦에 도착한 닷새 후 곧 詩會를 열어 준비를 하였다.

4월 7일 對馬島 府中에서 以酩菴 長老가 律詩 한 首를 보낸 것을 계기로 詩會가 열려, 正使는 詩會에 製述官 李顯相, 書記 金善臣, 李內乘(李運植), 李進士(李文喆)를 파견하였는데, 일행은 해가 지기까지 대마도 文士들과 應酬하느라 “피곤하였다”는 것을 보면, 詩文唱和에 흥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使行錄에 以酩菴 長老가 보낸 律詩를 실은 것은, “善隣하는 皇華는 聖朝에 報答하오”라는 句節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皇華”는 ‘天子의 使臣’을 일컫는 말인데, 通信使를 ‘天子의 使臣’이라는 修辭的인 美辭麗句로 읊었으니, 이런 律詩는 使臣의 自尊心을 높여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이번에는 비록 대마도에서 易地通信을 하게 되었지만 前例대로 文士들과 교류를 위하여, 幕府에서는 林家 7代 太學頭 林述齊(1768-1841)과 書記 松崎慊堂(1771-1844), 昌平齋의 教授 古賀精里(1750-1817), 加賀藩의 三宅橋園, 會津藩의 樋口溜川, 佐賀藩의 草場佩川을 帶同하였는데, 이들은 藩學이 번창한 지역의 儒官들이었다. 이들과 詩文唱和를 나누는 것은 6월 21일 “이른 아침에 江戸의 林太學이 弟子 3~4인을 거느리고 私禮로써 두 사신을 와 뵈어, 두 사신이 여러 文士와 함께 오래도록 筆談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들의 문장이나 필담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내용이 特記할 만큼 다채롭거나 심각한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詩會는 한 번 기록되었으며, 先行처럼 번거로운 詩會나 揮毫에 대한 부담은 없었으나, 幕府에서 선발한 儒官들이 멀리서 왔었기에 사

신의 기대는 컸을 것이다.

幕府의 儒官 중 主役은 ‘寬政의 三博士’로 존경받던 古賀精里이었으며, 古賀精里는 『李退溪書抄』全十卷(村士玉水 編著)을 가져와 李退溪 先生을 모신 陶山書院에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8세기 後半, 家治 將軍 때 田沼意次(1719-1788)의 全盛時代에 일본 儒學界는 朱子學派 이외의 學派가 分立하여 사상적 혼란이 있었으나, 松平定信은 改革의 일환으로 1790년에 朱子學을 正學으로 하고, 湯島聖堂에서 正學 이외의 異學의 教授를 금하였다. ‘寬政異學禁止’을 추진한 중심인물이 ‘寬政의 三博士’인 岡田寒泉, 柴野栗山, 尾藤二洲이었고, 나중에 岡田寒泉(1740-1816)이 轉出되고 古賀精里가 登用되어 ‘寬政의 三博士’라 일컬어졌다.

古賀精里는 岡田寒泉의 後學이었고, 岡田寒泉가 村士玉水の 門人이었으므로, 일본 朱子學 正統 學派의 스승이라는 村士玉水가 編纂한 『李退溪書抄』全十卷은 이러한 연유로 通信使를 통하여 陶山書院에 전달되었다.⁴⁰⁾

이렇게 ‘寬政異學禁止’로 주자학이 正學으로 자리 잡았고, 江戸의 林太學이 弟子를 거느리고 대마도까지 왔으며, 또 『李退溪書抄』가 일본에서 편찬될 정도이었으니 사신들은 그러한 일본 思想界 분위기에 만족하며, 朱子學이 主流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朱子學이 強化된 것은 막부의 改革政策의 一環이었지, 自生的으로 思想界의 主流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官學의 반대편에는 自生的으로 성장한 國學者들이 일본 古代史와 古典을 바탕으로 조선과 중국을 반대하며, 통신사에 비판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대마도에 局限된 易地通信으로는 일본의 情勢를 파악할 수는 없었으므로, 조선은 처음부터 易地通信을 반대하였는데, 實學者 李瀾(1681-1763)은 오래 전부터 일본 문헌을 연구하여, 일본에 國學者의 擡頭를 우려하였던 것은 탁월한 혜안이었다.⁴¹⁾

四. 結論

先行 通信사 倂견과 비교할 때 易地通信은 분명히 前例에 없던 변혁이었고, 朝鮮을 당황하게 만든 뜻밖의 제안이었다. 조선은 그러한 제안을 접하고 幕府와 대마도의 本心을 의심하며 신중히 대처하였고, 幕府와 대마도는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하였다. 易地通信을 제안한 幕府의 의도는 겹친 흉년과 재해로 어려워진 재정을 절약하는 것이었고, 幕府 位

40) 『李退溪書抄』全十卷 중 1卷은 陶山書院 展示室에 있고, 9卷은 韓國國學振興院에 보관되어 있다.

41) 李瀾『星湖僿說』人事門 <日本忠義>

相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 통신사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어려운 시기에 幕政을 맡은 松平定信이 易地通信을 제의한 취지도, 幕府의 재정 절약이었지 ‘朝鮮 蔑視觀’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蔑視”라는 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겠다. 원래 ‘朝鮮 蔑視觀’이란 말은 없었다. 당시 일본 國學者들의 주장은 “朝鮮 蔑視”가 아니라, 통신사를 歡待하는 막부 처사에 대한 반발과 아울러, 사신들의 “우월감에 찬 거만한 태도”를 보고 느낀 문화적인 반발로 보아야 할 것인데, 後世 일본 학자들이 이러한 용어를 썼다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조선은 교린에서 前例와 禮를 중시하였기에, 통신사 파견에 변혁을 원하지 않았고, 통신사 파견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 체면을 먼저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 차이로, 양국간에 易地通信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놓고 교섭에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양국은 오랫동안 교린외교를 하였지만, 서로 간에 상존하는 불신이 교섭에 걸림돌이 되었고, 조선은 仲介役을 맡은 對馬島를 불신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 동북아 정세가 안정되어, 양국 관계를 결정짓는 군사적 긴장이나 상호 경계심이 없어졌으나, 양국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조선도 처음의 태도를 바꾸어 소극적으로 易地通信을 수용하게 되었다.

통신사 禮單을 前에 비해 半 이상 줄여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며, 짧은 여정과 줄어든 인원으로 사행도 훨씬 수월하였기에, 양측 모두 지난 1764년 사행처럼 긴장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신사의 관심은 역시 일본에서 국가 체면을 세우는 것과 무사히 國書를 전달하려는 극히 의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번 사행에도 문화교류가 중요한 이벤트였으나, 통신사는 일본의 서민 연예나 새로운 技術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통신사의 관심은 오직 詩文唱和에 있었으며, 江戸에서 온 儒官들과는 극히 형식적인 교류만 가졌고, 그들의 詩文에도 관심이 적었다. 통신사가 볼 때, 일본 朱子學은 조선 朱子學을 추앙하는 것 같았으므로, 일본 思想界에 國學이 대두하는 새로운 氣運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다.

國學者들은 일본 古代史와 古典을 바탕으로 朝鮮에 대한 反感을 조성하며 朝鮮과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오랜 외교적인 줄다리기를 끝에 겨우 성사되었던 1811년 易地通信은 통신사 외교의 막차가 되고 말았다.

【參考文獻】

- 『國譯 增正交隣志』民族文化推進會
- 『國譯 海行摠載』X, 『東槎錄』 民族文化推進會
- 孫承喆(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지성의 샘
- 鄭成一(2000) 『朝鮮後期 對日貿易』新書苑
- 高正晴子(2001) 『朝鮮通信使之響應』明石書店, p.185-208
- 三宅英利(1986)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K C I

要 旨

先行の通信使の派遣と比べると、易地通信は前例にない變革で、朝鮮はその提案を意外に思った。朝鮮は對馬の提案に接し、幕府と對馬の本音を疑ったが、幕府と對馬は粘り強く交渉を續けた。易地通信を提案した幕府の意圖は、財政にその狙いがある、日本の事情がそれ以上通信使を國內政治に利用する必要性がなくなったからであった。

「朝鮮蔑視」という言葉は、元來なかった。當時の一部の國學者の主張は、「朝鮮蔑視」というより、通信使を優遇する幕府に對しての反撥と、使臣の優越感の對しての文化的な反撥と見るべきであろう。「朝鮮蔑視」という用語は後世に出來たことで、この用語の使用には注意を要する。

キーワード：易地通信, 兩國講定, 文化交流, 對馬島, 朝鮮蔑視觀

투 고 : 2005. 5. 31
1차 심사 : 2005. 6. 11
2차 심사 : 2005. 7. 2

住 所 :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문과
電 話 : 043-229-8342
e-mail : joshua@cju.ac.kr